

60 피부관리사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접촉성 피부염

성별	여성	나이	21세	직종	피부관리직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□피부관리실에서 고객의 얼굴 및 전신 피부를 관리해 주는 일을 하였다. 2013년 7~8월경 양쪽 아래팔 및 손가락 사이가 붓고 습진이 발생하여 피부과 의원 방문 후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2년 간 서울특별시에 있는 □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였다. 주 5일제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2~4명 정도의 고객을 관리하였고 1인당 관리시간은 1.5~2.5시간 정도 소요되었다. 주된 일은 고객의 얼굴 및 전신 피부를 관리해 주는 것으로, 주로 손을 이용하여 클렌징, 딥클렌징, 기계 관리(기계를 이용한 비타민 등 제품 투여), 얼굴 마사지, 전신 마사지 등이었다. 직종의 특성상 특별한 보호구 없이 전적으로 손을 이용하여 식물 추출 오일 및 화장품으로 상기 작업을 수행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피부질환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(기타화학물)

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11년 11월 피부관리사 입사 후 특별한 증상없이 지내던 중 2013년 7~8월 경부터 피부관리용 오일에 노출되는 부위로, 붓고 간지럽고 따가운 증상이 있었고, 9월 경부터 연고를 발라도 호전되지 않아 피부의원을 방문하였고, 피부 첩포검사나 다른 특

별한 검사없이 반복적 자극 접촉에 의한 접촉 피부염을 진단받았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의 병변의 위치가 업무 시 노출되는 부위와 일치하고, 동종 업종에서 취급하는 오일, 화장품들이 자극원/알레르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, 업무 시작 후 30분 후 발현되는 선후 관계가 있다는 점과 근무가 없을 때 호전된다는 점, 그리고 입사 이후 피부 관리 이외에 특별히 다른 물질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직업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 끝.